「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4호(2019 겨울): 1-22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2 No.4 (2019 Winter)
http://dx.doi.org/10.20484/klog.22.4.1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유권자 층의 투표결정분석: 대구경북유권자의 사전사후조사*

송 건 섭

국문요약

이 글은 6.13지방선거의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또 이들 간의 관계에서 후보자이미지의 매개효과 여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사전조사에서 정당요인, 공약요인은 매개변수인 후보이미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인물요인은 그렇지 않았다. 사후조사에서는 정당요인이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사전조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조사에서는 공약요인의 간접효과의 값이 크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공약요인, 정당요인 등이 간접효과가 있으며, 인물요인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표결정에 사전조사에서는 정당요인과 인물요인이 매우 강력하지만, 사후조사는 인물, 이미지 요인이 중요하였다. 젊은 유권자 층은 후보자의 정당 및 인물을 고려하지만, 결국 투표결정에는 인물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에서는 젊은 유권자 층의 후보자 능력 및 이미지 중심의 선택을 지향할 가능성이 크며, 후보자 입장에서는 젊은 유권자 층의 인물선호도를 감안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지방선거, 투표행태, 투표결정, 사전·사후조사

Ⅰ. 서론

최근 유권자들의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수준은 향상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화 이후 민주 시민교육을 받은 젊은이 들이 유권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치선거흐름의 판도가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젊은 유권자 층의 투표행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젊은 유권자 층의 투표참여 수준과 선거소통방식은 어떠한가? 또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의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투표 전후의 결정행태는 어떠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주요 모델을 제시한 논문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후보자 선택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고, 매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선거마다 바뀌는 법, 제도, 지역주의 등으로 제대로 후보자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도 30년 이상 걸쳐 시행되었고, 선거에 대한 주민참여의 정착화를 고려하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바람직한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번 2018년 6.13지방선거 사전 및 사후조사를 통해 젊은 유권자 층의 행태를 분석하고 투표결정모델 개발 및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젊은 유권자 층의 선거관심도 및 참여도, 투표참여결정요인을 분석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젊은 유권자 층의 후보자 선택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한 데이터, 선거 실시 후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선거특성과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논의하고,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젊은 유권자 층을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투표행태 및 결정모델

투표행태(voting behaviors)는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투표로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행태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유권자 개인들의 사회적 특성, 정당일체감, 심리적 요인, 합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치관, 인지역량, 정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선거의 행동과학적인 분석을 의미하며 분석 단위는 유권자의 투표행동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찰한다(조제묵, 2005: 8). 그리고 투표행태의 연구로는 사회학적·심리학적·합리적·인지적 접근방법 등이 있으며, 투표선택의 당사자는 후보자, 유권자, 정책·쟁점지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거의 후보자나 정당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 선택에 따라 권력을 얻기 때문에 제시한 정책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유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당선된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군수와 국회 및 광역·지방의회는 유권자에게 공약을 정책화하고 집행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기회이며, 후보자는 정치철학을 선거 공약화하여, 정책 산실의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정책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는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투표행태 연구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투표를 했고, 그 요인이 얼마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가장 영향이 많은 요인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이론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권자 선택의 모델화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명성 및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한 요인인가? 아니면

유권자의 행태심리인 신념이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B. Newman & J. Sheth, 1985: 3-4). 분석모델에 대한 검토는 연구자가 어떤 요인을 변수로 하고 어떻게 분석했는가를 알아야 상호비교가 가능하고 타당한 모델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행태의 대표적인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ampbell 모델은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근거를 둔 모델로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결정요인은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쟁점(이슈), 후보자의 이미지이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당일체감이다. 정당일체감은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나 쟁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투표선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ampbell 모델은 구성변수의 개념화 및 측정에 문제점이 있으며, 각 변수 간의 상호작용 관계, 유권자들의 태도변화 및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영욱, 1993: 50). 둘째, Newman & Sheth의 모델은 개인선택 행동모델을 근거로 하여 개발된 것이다.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치적 이슈, 사회적 속성, 후보자의 특성, 감정적 느낌, 현재의 사건, 개인적 사건, 피아적 이슈 등 7가지를 들고 있다. 이 모델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슈를 제공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선택을 하며(합리적 선택이론), 자신이 속한 사회적 속성에 따른 투표행태를 보인다(사회학적 이론). 감정적 느낌은 유권자들의 책임감 또는 애국심 등을 의미하며, 후보자의 특성은 학력 및 경력, 지적능력, 신뢰감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언론방송의 보도, 여론, 정치 마케팅 등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에서 자주 목격되는 투표쏠림 현상이나 이당 저당 돌아가며 표심이 쏠리는 스윙투표 현상 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셋째, Lindon의 모델에서 투표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유권자 자신에게 주어진 선거의 선택(후보자들의 수와 특성)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는 것이다. 이 모델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최근의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개인의 생활상태, 가족 및 환경·정치단체 등이 개인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투표의사 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가능한 모든 변수를 포함하고 그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엄격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 분석모델로 이상적이며, 소비자 행태분석과 관련해서 상당한 설득력도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며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설사 파악하더라도 어떤 요소가 투표행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2. 6.13 지방선거의 투표행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선거인수는 전국 4290만 7715명으로 전체 인구 5190만 0975명의 82.7%이며, 최근 선거의 연령대 분포와 비교해 보면, 40대 이하 젊은 유권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0대 이상 중·노년기 유권자들이 증가하여 선거인 구성비에서 인구고령화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대구는 204만 7285명(4.8%), 경북 225만 1538명(5.2%)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유권자는 전국대비 약 10%에 해당된다.

대구경북지역의 6.13지방선거와 관련된 몇 가지 투표행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율에서는 전체 60.2%(사전투표 20.1%)인데 대구지역은 57.3%(사전투표 16.4%), 경북지역은 65.9%(사전투표 24.5%)로 대구지역은 전국평균보다는 낮으나 경북지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로 보면, 전체 남성 59.9%(사전투표 22.2%)이고 여성 61.2%(사전투표 18.4%)로 여성의 투표율이 높았다. 대구지역은 남성 48.0%(사전투표 18.5%), 여성 52.0%(사전투표 15.0%)이다. 경북지역은 남성 49.0%(사전투표 25.8%), 여성 50.7%(사전투표 23.2%)이다. 대구지역은 여성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았고, 경북지역은 낮았다. 셋째, 연령대별로 투표율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그림 1〉과 같다. 전체 투표자 중 60대 이상이 25.2%를 차지했고, 40대(20.3%), 50대(19.9%), 20대(17.4%), 30대(17.2%)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은 60대 이상이 31.3%이고, 50대(22.3%), 40대(17.9%), 20대(15.2%), 30대(13.3%) 순이다. 경북지역은 60대 이상이 36%이고, 50대(22.4%), 40대(15.9%), 20대(10.5%), 30대(10.3%) 순이다. 전반적으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전국 투표자보다 노년층이 늘었고, 젊은 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은데,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투표 비율이 높아, 실제 유권자 비율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실제 60세 이상이 지방선거 투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유권자 비율보다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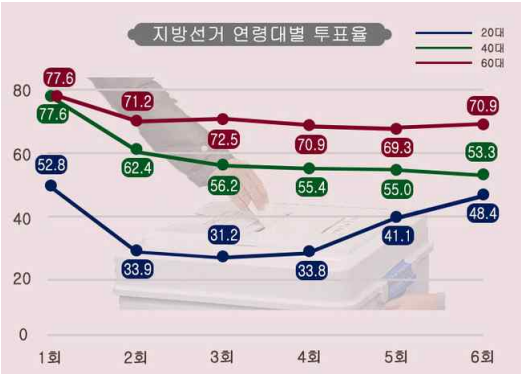
대체로 20·30대 젊은 층 투표율은 지난 1995년 1회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회 지방선거 때 52.8%였던 투표율은 2회 지방선거에서 33.9%까지 떨어졌다. 3회 31.2%, 4회 33.8%, 5회 41.1%, 6회 48.4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진행된 7회 지방선거(2018년 6.13)에서 20대 투표율은 48.4%에 그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도 20·30대 젊은 층 투표율은 대구 28.5%, 경북지역은 20.8%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젊은 층 유권자의 지방선거 참여는 투표행태와 결정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령층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변화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전·후 젊은 층 유권자의 행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40대(21.7%)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21.6%)이 두 번째이나, 2018년 지방선거는 60세 이상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전국 226개 시·군·구중에서 60세 이상이 30%를 넘는 지역은 2014년 지방선거 때 90개에서 2018년 지방선거는 110개로 20개가 늘어났으며, 40~50%인 곳도 54개로 2014년 38개보다 크게 늘어났다.

2) 한국이 실버 민주주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선거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대 간 투표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정치권은 18세부터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18세 인구는 현재 61만 명이나 저출산 여파로 4년 뒤에는 47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18·19세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는 2.8%이나 2024년부터2.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60세 이상은 현재 1,075만 명에서 4년 후 238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 연령대별 투표율

선거별	연령대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제1회 지선 (95.06.27)	52.8	68.1	77.6	81.9	77.6
제2회 지선 (98.06.04)	33.9	46.2	62.4	73.8	71.2
제3회 지선 (02.06.13)	31.2	39.3	56.2	70.0	72.5
제4회 지선 (06.05.31)	33.8	41.4	55.4	68.2	70.9
제5회 지선 (10.06.02)	41.1	46.2	55.0	64.1	69.3
제6회 지선 (14.06.04)	48.4	47.5	53.3	63.2	70.9



자료: 중앙선관위(2010~2017), 대구광역시선관위(2018), 경상북도선관위(2018).

3. 선행연구 검토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투표결정에 반영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유권자들이 선거기간에 투표할 후보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에 초점을 두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투표할 후보자 선택 과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요인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출신지역, 정치적 이념성향, 정당일체감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과정 연구에서 유권자의 정당·이념성향·지역주의가 투표결정의 주요한 변수로 평가한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후보자 공약이나 유권자들의 정책선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지난 70여 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지만, 이러한 투표행태 연구의 발전에 대하여 비판들도 있다. 이는 투표행태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당연한 관계이며, 설명하는 투표 현상이 현실정치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미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과 질적 분석방법을 경시하고 계량적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분석방법에 대한 비판들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투표행태 연구가 계량적 방법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선거나 투표와 같은 대중적인 현상에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인과적인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중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7~80년대만 하더라도 투표행태를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수적인 여론조사 자료도 거의 없었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도 개발되지 않았다(윤천주, 1979; 길승흠·김광웅·안병만 1987). 그 이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진행된 투표행태 연구는 지역투표 이외에 세대 및 이념 투표, 경제 및 정부업적 투표, 이슈 및 후보자 투표 등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이현우, 1998; 이내영, 2002; 강원택, 2003).

이를 통해 투표결정의 이론적 모형인, 사회학적 모형, 심리문화적 모형, 합리적 모형의 경험적 적실성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 도저촌고(都低村高)나 여촌야도(與村野都)와 같은 선거 결과의 집합적인 분석으로 제한되었던 투표행태에 대한 이해가 이론적 차원과 경험적인 검증 면에서 각각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투표행태 연구는 아직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ⅰ) 투표행태 연구가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발전했으나 경험적인 검증 부분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최영진, 2001; 강명세, 2005). ⅱ)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독립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있어 다른 변수와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고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도 인과적 경로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강원택, 2003; 최준영·조진만, 2005). ⅲ)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에서 투표행태 연구의 대부분은 하나의 선거를 분석 단위로 하고 있어 민주화 이후 나타난 투표행태의 변화와 지속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이현우, 1998; 이재철, 2008).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후보자 인물, 이미지, 정당, 정책(공약) 등이지만, 선거의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지역주의 경향, 지역경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등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2000)와 조현걸 외(2000)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는 후보자의 인물, 도덕성, 경력·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있고, 이갑윤·이현우(2000)는 정당요인을 강조하였고, 가상준(2004)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요인과 정당의 상대적 영향력은 여당후보이냐 야당후보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즉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은 여당의 선거결과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야당에게는 정당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강원택(2007)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미치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선거구 수준의 후보요인보다 정당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적 유권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 중심으로 표 결집 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분석하였다. 송건섭·이곤수(2011)은 정책과 공약은 경쟁후보들이 표명하는 정책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어렵고, 유권자들의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간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지방선거에서 이슈투표(공약)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

한편, 유권자가 후보자를 인지하는 수단인 언론매체(TV·신문 등), 선거홍보물, 인터넷, SNS 등도 후보자 결정을 고려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선거종류, 투표시기,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유권자의 연령층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의 투표행태(투표율, 투표인지 및 결정기준 등)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젊은 유권자 층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전·후의 투표행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2018년 6.13지방선거의 사전사후조사를 바탕으로 젊은 유권자 층의 후보자 결정요인 및 후보이미지와 투표결정 사이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요인과 투표결정사이 후보이미지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젊은 유권자 층의 정당, 인물, 공약요인은 후보이미지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젊은 유권자 층의 후보이미지는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젊은 유권자 층의 후보이미지가 정당, 인물, 공약요인과 투표결정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다. 투표행태에 관한 이론검토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후보자 결정요인의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을 독립변수로, 후보이미지를 매개변수로, 그리고 결정요인과 후보이미지의 결과로 발생하는 투표결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먼저 후보자 결정요인이 후보이미지와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결정요인과 후보자 선택 간의 후보이미지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유권자들의 후보자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는 후보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후보자 결정과정에는 정치·문화적 특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선거당시의 정치체제나 정치적 상황, 후보자의 속성, 정당과의 연계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요인을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요인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송건섭, 2004). 여기서 고려되는 후보자 결정요인으로는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을 들 수 있다(Campbell, 1960; Miller, 1984; Lewis-Beck & Rice, 1992).[3] 이러한 요인들은 후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1 선거전·후 정당요인은 후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선거전·후 인물요인은 후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선거전·후 공약요인은 후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캠페인에 대하여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유권자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유권자가 투표행태를 결정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Kelly와 Mirer(1974: 572-591)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하여 좋아하는 요소가 많은 후보자보다 싫어하는 요소가 적은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권

3) 여기서 첫째, 인물요인은 후보자에 대한 일체감과 같은 일차적인 유대감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선택하는 감정적 투표행태. 둘째, 정당요인은 정당의 연합, 분당, 통합 그리고 정당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셋째, 정책(공약)요인은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이나 공약을 판단의 준거로 투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송건섭·이곤수, 2011: 49-71).

자가 후보자를 인지하는 정당, 인물, 공약요인들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2-1 선거전·후 정당요인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선거전·후 인물요인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선거전·후 공약요인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후보자의 이미지란 개인이 지닌 기존의 후보에 대한 지식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정보 가운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식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가운데, 특정 후보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 인상, 주장 등의 정보 집적체이다(이준웅, 1998).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권자들은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정책적 이슈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단순 명료하면서도 쉽게 후보자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이미지에 근거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bett, 1991; Miller, Wattenberg, & Malanchuk, 1984; Wyer et al., 1991).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는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3-1 선거전·후 후보이미지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요인은 유권자들에게는 분절적이고 상대적으로 인지적 노력이 많이 드는 개별 이슈들에 대한 지각보다 훨씬 더 손쉽게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고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추론장치로 간주된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위한 정당, 인물, 공약요인 등은 직접적으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후보자의 이미지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4-1 선거전·후 정당요인은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선거전·후 인물요인은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선거전·후 공약요인은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자료

연구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젊은 층에 속하는 그룹을 집중 조사하였다. 이때 조사응답자는 자체적으로 임의선정 되었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직접대면조사와 우편으로 수집하였다. 응답은 설문지법으로 실시하였고 응답된 자료를 직접 조사원이 수집하였다. 응답지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2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예비조사 때에는 직접대면조사, 전화조사 방법 등을 병행하였다. 설문지구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거친 후, ⅰ)사전조사는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2주 동안 대구·경북지역 젊은 유권자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4] 그리고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직접방문과 우편조사를 통하여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한 설문지는 총315부이다(회수, 90.0%). ii)사후조사는 2018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2주 동안 동일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350부를 배포하여 333부를 수집하였다(회수, 95.0%). 그리고 사전사후조사결과,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4부를 제외한 634부의 유효한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변수

후보자 결정요인은 유권자들이 지지할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는 수단 혹은 기준을 의미한다. 후보자 결정요인에 관한 항목은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 외부요인, 후보능력, 후보평판 등을 들 수 있다(이준웅, 1998; 김현주, 1999; 조현걸·박창규, 2000; 송건섭, 2004; Miller, 1984; Campbell; Verba와 Nie, 197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단순화 차원에서 후보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요인(정당고려, 정치상황, 정당이념 등), 인물요인(외모·말씨·태도, 교육·경력·자질, 민주성·참신성·신뢰성 등), 공약요인(선거정책, 실현가능성, 공약일치성 등) 등을 선택하였다.

후보자 이미지란 개인이 지닌 기존의 후보에 대한 지식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정보 가운데, 특정 후보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 인상, 주장 등의 정보 집적체라고 볼 수 있다. 후보이미지는 '강하다', '빠르다', '좋다' 등의 몇 가지 의미론적 함의를 지닌 인지요소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지구성체(cognitive structure)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미지요인은 선거 및 후보자 이미지, 후보선택, 참여, 관심 등 여섯 개 항목을 선택하였다(이상율, 1990; 이준웅, 1998, 김현주, 1999; 송명학, 2003; Lewis-Beck & Rice, 1992). 한편, 투표결정요인은 투표행동을 의미하며, 직접 투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투표행동이라는 면에서 투표태도에 해당되는 결정요인과는 구별된다. 선택요인은 투표행동, 필요성, 투표고려, 후보자 정보, 정치인 선호, 관심도 등 다섯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권인석, 2000; 김욱, 2006; 조진만·최준영, 2006; 한정훈·강현구, 2009).

4.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알파 값들이 사전조사 .635~.859, 사후조사 .684~.896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신뢰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4) 본 연구에서의 조사 자료는 대구경북지역의 젊은 유권자 층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우선 대구지역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 자치구·군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경북지역은 경산, 구미, 영천, 청도, 칠곡, 군위, 성주 등 대구인근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을 동일 지역 및 동일인으로 선정하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사전과 사후에 각각 350부씩 700부를 조사하였다.

〈표 1〉 요인 및 신뢰계수

변수	잠재변인	설문지	사전조사			사후조사		
			신뢰계수	요인값(공통성)		신뢰계수	요인값(공통성)	
				제거전	제거후		제거전	제거후
후보 결정요인	정당 요인	정당선호	.802	.781	.781	.825	.772	.772
		정당정치		.690	.690		.719	.719
		정당이념		.687	.697		.742	.742
	인물 요인	인물외적	.635	.566	.566	.715	.488	.488
		인물내적		.698	.698		.758	.758
		인물성향		.575	.575		.687	.687
	공약 요인	공약선거	.687	.557	.557	.684	.530	.530
		공약실현		.660	.660		.706	.706
		공약동조		.667	.667		.728	.728
후보이미지	이미지	선거이미지	.763	.477	.525	.807	.571	.614
		후보이미지		.596	.645		.616	.678
		정치이미지		.477	.570		.624	.615
		평판이미지		.537	.566		.661	.696
		참여이미지		.368	제거		.421	제거
		관심이미지		.411	.504		.620	.611
투표선택	후보자선택	투표의향	.859	.569	.573	.896	.771	.817
		투표관심		.412	제거		.451	제거
		투표고려		.716	.764		.582	.567
		투표필요		.769	.797		.791	.832
		투표요소		.562	.594		.754	.776
		투표정보		.538	.548		.572	.550

척도의 내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테이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 -Olkin) 검정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KMO 값이 사전조사 0.845, 사후조사 0.849로 꽤 높게 나와 표본 데이터가 요인분석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KMO와 Bartlett의 검정

검정 방법		사전조사	사후조사
표본 적절성의 KMO 측도		0.845	0.84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2	2600.921	3342.983
	df	210	171
	p	0.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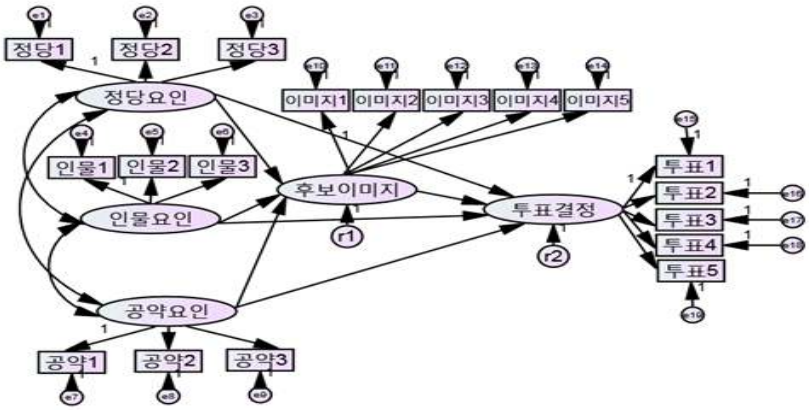
요인분석에서 요인 내 항목들은 수렴타당도를 가지게 되며 요인들 사이에는 판별타당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 18개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요인 수 결정방법으로는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들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카이저규칙(Kaiser rule)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은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에 나와 있으며, 모든 변수(문항)들이 각각의 요인으로 묶였고 전체 5개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비는 사전조사 71.928%, 사후조사 74.409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 3〉 타당도 결과

변수	항목	요인	사전조사			사후조사		
			요인적재값	아이겐값	분산비(%)	요인적재값	아이겐값	분산비(%)
정당 요인	정당1	정당선호	.781	2.158	71.928	.772	2.232	74.409
	정당2	정당정치	.690			.719		
	정당3	정당이념	.697			.742		
인물 요인	인물1	인물외적	.752	1.739	57.971	.699	1.933	64.446
	인물2	인물내적	.835			.871		
	인물3	인물성향	.690			.829		
공약 요인	공약1	공약선거	.581	1.664	55.477	.656	1.864	62.136
	공약2	공약실현	.812			.840		
	공약3	공약동조	.817			.853		
후보 이미지	이미지1	선거이미지	.725	2.611	52.214	.765	2.595	51.891
	이미지2	후보이미지	.803			.816		
	이미지3	정치이미지	.685			.752		
	이미지4	평판이미지	.753			.645		
	이미지5	관심이미지	.636			.602		
투표 선택	투표1	투표의향	.744	3.235	64.707	.767	3.613	72.262
	투표2	투표고려	.874			.908		
	투표3	투표필요	.893			.914		
	투표4	투표요소	.771			.872		
	투표5	투표정보	.726			.747		

연구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SEM)은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SEM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1. 표본특성

대구경북지역의 젊은 유권자 층의 유효 응답지 사전조사 301개, 사후조사 333개에 대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사전조사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45.8%, 여성 54.2%이고, 학력은 고졸 16.6%, 대졸 75.4%, 대학원 재학이 8.0%으로 대(재)졸 응답자가 많았다. 거주 지역은 대구지역이 41.9%, 그 외지역이 58.1%로 나타났고, 거주기간은 5년 이하가 39.2%, 5~20년이 27.3%, 21년 이상이 33.5%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의 경우, 남성 48.9%, 여성 51.1%이고, 학력은 대졸 81.6%로 가장 많았고, 거주 지역은 대구 47.7%, 대구이외 52.3%이며, 거주기간 5년 이하가 32.72%, 5~20년이 34.2%, 21년 이상이 33.0%로 조사되었다.

〈표 4〉 응답자특성

구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38	45.8	163	48.9
	여성	163	54.2	170	51.1
학력	고졸이하	50	16.6	26	7.8
	대(재)졸	227	75.4	272	81.6
	대학원재	24	8.0	35	10.5
거주지역	대구지역	126	41.9	159	47.7
	대구이외	175	58.1	174	52.3
거주기간	5년이하	118	39.2	109	32.7
	6~20년	82	27.3	114	34.2
	21년이상	101	33.5	110	33.0
계		301	100.0	333	100.0

2. 기술통계

아래 〈표 5〉에서는 젊은 유권자 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결정요인, 이미지, 투표결정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p<.05$).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당 및 인물에 강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투표결정에는 학력이 낮거나 높은 응답자의 점수가 높았다. 거주 지역별에 따라서는 정당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대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정당요인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거주기간 면에서는 공약요인이 차이를 보였다($p<.05$),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응답자는 공약요인($p<.05$), 진보적인 응답자는 정당요인, 인물요인, 투표결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0.001$). 한편, 사전조사의 경우, 인물요인의 점수가 높은데 비해, 사후조사에서는 이미지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p<.05$).

〈표 5〉 평균차이

구 분		N	결정요인						후보이미지		투표결정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					
			M	SD	M	SD	M	SD	M	SD	M	SD
조사시기	a.사전조사	301	3.06	.821	3.71	.608	3.21	.569	2.79	.602	3.61	.791
	b.사후조사	333	3.10	.796	3.62	689	3.23	.645	2.90	.623	3.58	.880
	독립표본검증		*t=-.723*		*t=1.759**		*t=-.379*		*t=-2.362**		*t=.332*	
성별	a.남성	301	3.07	.834	3.65	.673	3.25	.641	2.86	.683	3.61	.837
	b.여성	333	3.09	.784	3.68	.635	3.20	.582	2.85	.549	3.58	.839
	독립표본검증		*t=-.297*		*t=-.516*		*t=.881*		*t=.358*		*t=.427*	
학력	a.고졸	76	2.79	.863	3.47	.724	3.15	.614	2.85	.625	3.71	.836
	b.대(재)졸	520	3.11	.798	3.69	.630	3.24	.597	2.85	.621	3.54	.834
	c.대학원재	38	3.19	.726	3.66	.753	3.20	.761	2.96	.530	4.04	.759
	ANOVA		*F=5.904***		*F=4.011**		*F=.641*		*F=.627*		*F=7.157****	
거주지역	a.대구지역	285	3.15	.825	3.68	.695	3.25	.620	2.82	.621	3.58	.846
	b.대구이외	349	3.02	.790	3.64	.617	3.19	.601	2.85	.615	3.60	.833
	독립표본검증		*t=2.042**		*t=-.898*		*t=1.136*		*t=1.459*		*t=-.333*	
거주기간	a.5년 이하	227	3.14	.787	3.64	.611	3.14	.583	2.82	.587	3.66	.791
	b.5~20년	196	3.07	.785	3.68	.739	3.28	.636	2.88	.566	3.50	.873
	c.21년이상	211	3.04	.852	3.67	.613	3.26	.607	2.86	.687	3.61	.850
	ANOVA		*F=.442*		*F=.774*		*F=3.317**		*F=.576*		*F=.148*	
정치성향	a. 진보적	170	3.40	.862	3.79	.685	3.30	.652	3.02	.671	3.85	.770
	b. 중도적	373	2.89	.751	3.59	.631	3.17	.581	2.76	.549	3.45	.854
	c. 보수적	91	3.26	.696	3.68	.651	3.30	.626	2.93	.693	3.70	.771
	ANOVA		*F=28.705****		*F=5.283***		*F=4.046**		*F=11.748****		*F=14.918****	

* p〈0.05, ** p〈0.01, *** p〈0.001

3. 확인적 요인분석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잠재변인의 각 하위요인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각 변수의 하위 요인별로 높은 적재치를 보여, 모두 p〈.001이므로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각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설명한다는 것이다.

〈표 6〉 추정결과

경 로 (잠재변인→관측변인)			사전조사				사후조사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S.E.	C.R.(t)	p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S.E.	C.R.(t)	p
정당 요인	→	정당선호	1.000	-	-	-	1.000	-	-	-
		정당정치	0.790	0.069	11.442	0.000	0.892	0.060	13.777	0.000
		정당이념	0.696	0.060	11.701	0.000	0.830	0.060	13.777	0.000
인물 요인	→	인물외적	1.000	-	-	-	1.000	-	-	-
		인물내적	1.257	0.183	6.865	0.000	1.500	0.183	8.812	0.000
		인물성향	0.646	0.106	6.092	0.000	1.354	0.167	8.110	0.000
공약 요인	→	공약선거	1.000	-	-	-	1.000	-	-	-
		공약실현	2.838	0.639	4.439	0.000	1.701	0.241	7.048	0.000
		공약동조	2.179	0.492	4.429	0.000	1.693	0.241	7.013	0.000
후보 이미지	→	선거이미지	1.000	-	-	-	1.000	-	-	-
		후보이미지	1.042	0.108	9.661	0.000	1.009	0.081	12.510	0.000
		정치이미지	1.151	0.132	8.738	0.000	0.931	0.088	10.608	0.000
		평판이미지	1.166	0.130	8.962	0.000	0.715	0.083	8.608	0.000
		관심이미지	0.950	0.123	7.725	0.000	0.672	0.083	8.120	0.000
투표 결정	→	투표의향	1.000	-	-	-	1.000	-	-	-
		투표고려	1.095	0.083	13.219	0.000	1.015	0.028	35.717	0.000
		투표필요	1.261	0.093	13.547	0.000	0.733	0.038	19.372	0.000
		투표요소	0.786	0.076	10.353	0.000	0.672	0.083	8.120	0.000
		투표정보	0.769	0.081	9.481	0.000	0.631	0.042	14.935	0.000

4. 상관관계와 적합도

아래 〈표 7〉에서는 연구모형에 사용된 측정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 매개변수인 후보이미지, 결정요인인 투표결정 요인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전조사의 경우, 종속변수인 투표결정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후보이미지(r=.353)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의 경우에도 후보이미지(r=.549)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잠재변인들 간의 이러한 상관관계들은 이 연구의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다양한 인과관계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7〉 상관관계

구분	사전조사					사후조사				
	정당 요인	인물 요인	공약 요인	후보 이미지	투표 결정	정당 요인	인물 요인	공약 요인	후보 이미지	투표 결정
정당요인	1					1	.364**	.327**	.474**	.396**
인물요인	0.133*	1					1	.358	.297*	.489**
공약요인	0.260*	0.380**	1					1	.393**	.370**
후보이미지	0.330**	0.200**	0.404**	1					1	.549**
투표결정	0.319**	0.277**	0.214**	0.353**	1					`1

* p 〈 0.05, ** p 〈 0.01

연구모형에 대한 AMOS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의 검증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여기서 카이자승(χ^2)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들에서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구조방정식 모형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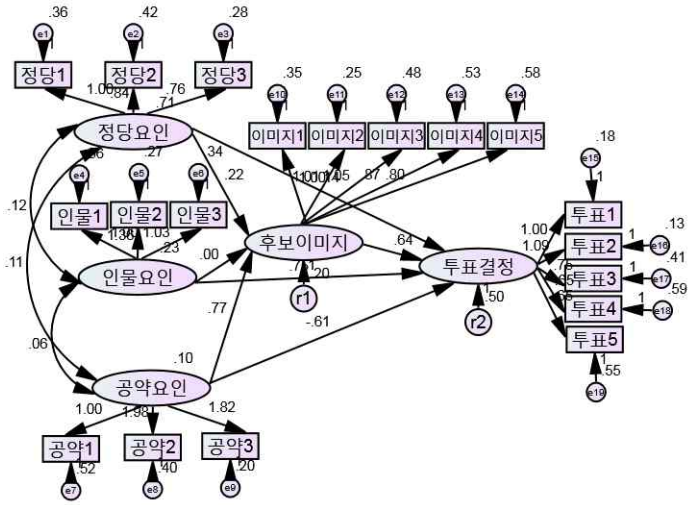
〈표 8〉 모형적합도

구분	적합지수	권장수준	사전조사		사후조사	
			연구모형	적합여부	연구모형	적합여부
절대부합지수	카이자승(χ^2)	p〉0.05	68.231	부적합	110.069	부적합
	기초부합지수(GFI)	0.90 이상	0.916	적합	0.972	적합
	근사원소 평균 자승잔차(RMSEA)	0.05 이하	0.040	적합	0.019	적합
증분부합지수	조정부합지수(AGFI)	0.90 이상	0.907	적합	0.960	적합
	표준부합지수(NFI)	0.90 이상	0.904	적합	0.932	적합

연구모형에 근거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요인과 인물요인 및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이미지는 투표결정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적인 가설들의 구체적인 검증에 앞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선택요인들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카이자승(χ^2) 검증은 전반적 부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이지만, 이 통계량은 표본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적합지수인 RMSEA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배병렬, 2011: 1159-1181). Steiger(1990)은 RMSEA값이 .05이하이면 좋은 부합도, .10이상이면 나쁜 부합도라고 하였는데, 여기선 사전조사 .040, 사후조사 .019로 나타나 모델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검증결과



5. 가설의 검증

직접효과에 관한 7개의 가설들에 대한 검증결과가 아래 〈표 9〉에 나와 있다. 사전조사의 경우, 젊은 유권자 층의 결정요인 중 정당 및 공약요인은 후보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인물요인은 후보이미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당 및 인물요인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공약요인은 그렇지 않았다.[6] 후보이미지 요인은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판명되었다. 사후조사의 경우, 인물요인은 후보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당요인과 공약요인은 투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사전조사에서는 정당과 인물이 중요하나, 사후조사에는 인물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9〉 직접효과 가설검증

가설	경로	사전조사				사후조사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표준 오차	C.R.	결과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표준 오차	C.R.	결과
가설1-1	정당요인→후보이미지	0.240	0.051	4.706***	채택	.366	.046	7.941***	채택
가설1-2	인물요인→후보이미지	0.045	0.051	.885	기각	.075	.046	1.629	기각
가설1-3	공약요인→후보이미지	0.325	0.051	6.364***	채택	.246	.046	5.333***	채택
가설2-1	정당요인→ 투표결정	0.215	0.053	4.034***	채택	.067	.045	1.477	기각
가설2-2	인물요인→ 투표결정	0.207	0.051	4.027***	채택	.320	.042	7.685***	채택
가설2-3	공약요인→ 투표결정	-.021	0.055	-.393	기각	.081	.043	1.861	기각
가설3-1	후보이미지→투표결정	0.250	0.058	4.300***	채택	.391	.049	5.333	채택

* p〈 .05 ** p〈 .01, *** p〈 .001

6) 6.13지방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시도지사, 시군구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로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인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인물요인이 후보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후보자 선택요인이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 및 인물요인,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정(+)의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조사의 경우, 공약요인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후보이미지라는 매개를 통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물요인은 후보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투표결정에는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의 경우, 정당요인과 공약요인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후보이미지라는 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물요인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사후조사의 투표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전, 사후조사 모두는 인물요인이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고 정당요인과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10〉 간접효과 가설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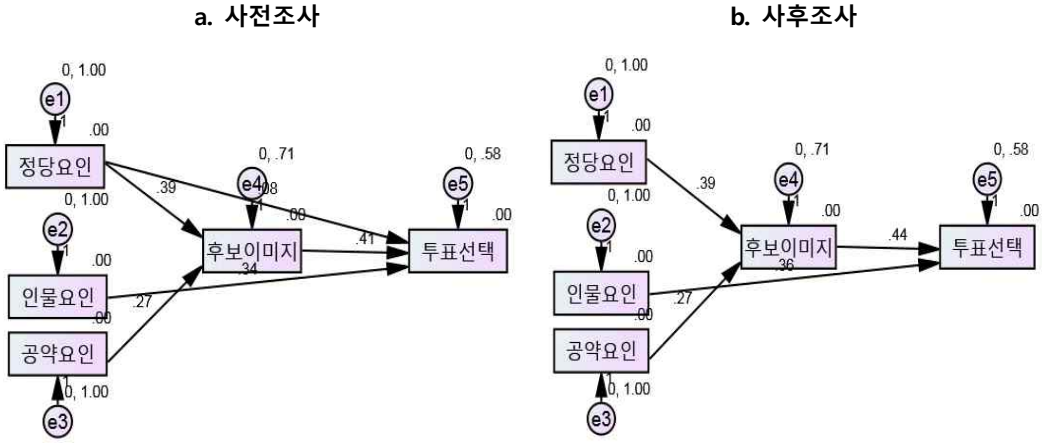
가설	경로	사전조사				사후조사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표준 오차	Sig. (BC)	결과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표준 오차	Sig. (BC)	결과
가설4-1	정당→후보이미지→투표결정	0.117	0.054	0.000	채택	0.153	0.033	0.010	채택
가설4-2	인물→후보이미지→투표결정	0.071	0.034	0.062	기각	0.031	0.026	0.185	기각
가설4-3	공약→후보이미지→투표결정	0.142	0.081	0.000	채택	0.103	0.031	0.007	채택

* p〈 .05 ** p〈 .01, *** p〈 .001

당초의 직접효과 가설 7개와 간접효과 가설 3개 중, 사전조사의 경우는 직접효과 가설 2개, 간접효과 가설1개가 기각되었고, 사후조사의 경우는 각각 3개, 1개 가설이 기각되어 조사시점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7] 즉 사전조사에서는 외생 독립변수인 인물요인이 매개변수인 후보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종속변수인 투표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요인은 후보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치나 투표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후조사에서는 이 외에 정당요인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후보이미지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검증된 이후의 구조방정식의 모형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7) 사전태도와 실제 행동 간의 연관성을 검토한 이계오·장덕현(2011) 연구는 지지정당(보수 혹은 진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보았다. 젊은 유권자 층은 지지정당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에 대한 실망으로 다른 결정요인을 더 중시할 수 있을 것이다. Miller(1992)는 젊은 층은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 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당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Franklin(2004)은 젊은 층은 기존세대와 정치적 기술이 부족해서 정당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림 4〉 최종모형



V. 결론

본 연구는 후보자 선택요인인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와 투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또 이들 간의 관계에서 후보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사후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13지방선거 젊은 유권자 층의 투표결정에는 후보선택요인과 후보이미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사전조사의 경우, 정당요인, 공약요인은 독립변수로서 매개변수인 후보이미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인물요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인물요인이 후보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곤수 외(2015)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속변수인 투표결정에는 정당요인과 인물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공약요인은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후보이미지는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의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후보선택에 이미지 요인을 강조하는 Lewis-Beck & Rice(1992)의 주장, Nimmon & Savage(1995), 이준웅(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후조사에서는 정당요인이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사전조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6.13지방선거 젊은 유권자 층의 후보이미지 요인이 후보선택요인과 투표결정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해 본 결과, 사전조사의 경우는 공약요인의 간접효과의 값이 크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공약요인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는 정(+)의 간접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재섭(2009)는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수도권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공약(정책)요인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

다. 또한 인물요인은 후보이미지에는 직접관계가 아니나 후보이미지를 매개로 투표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특히, 공약요인과 투표결정 간에 후보이미지는 완전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조사의 경우는 공약요인, 정당요인 등이 간접효과가 있으며, 인물요인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보면, 사전조사의 투표결정에는 정당요인과 인물요인이 매우 강력한 요인이지만, 사후조사는 인물, 이미지 요인이 강력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곤수 외(2011)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는 여당지지와 후보역량 평가변수가 결정적이었으며 그 효과는 후보인물요인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고, 강원택(2007)연구에서도 2006년 지방선거에 후보요인의 중요성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젊은 유권자 층은 후보자의 정당 및 인물을 고려하지만, 결국 사후조사 결과를 볼 때 마지막 투표결정에는 인물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선거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투표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젊은 유권자 층이 후보자 선택에 합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음에도 실제 투표행위에서는 그렇지 못함은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취약한 선거제도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선거의 비합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오랫동안 만연해온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힘들거나,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에 대한 행태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능력, 이미지, 지역발전 등이 강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정당공천보다는 유권자의 인물선호도를 감안해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 자료는 전국의 유권자가 아닌 대구경북의 젊은 유권자 층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연령층, 지역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보다 일반화된 지방선거 투표모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연구범위를 보다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투표결정요인으로 정당, 인물, 공약, 이미지 요인 등을 고려하였는데, 이 외에도 후보자 평판, 인지요인(인식수단), 외적요인(지연, 학연, 혈연 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한국 젊은 유권자 층의 투표결정모델의 일반화·표준화를 위해 후속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상준. (2004).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정당 및 후보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3(1): 5-29.

강원택. (2007). 정당·후보자요인과 선거운동: 서울시장선거를 중심으로. 이내영 외(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동아시아연구원.

김복래. (2010). 「선거사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한 선거비용행태분석: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김영화. (2000). 6.4지방선거에 나타난 대구·경북지역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송건섭·이곤수. (2015).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후보자 선택모델: 지방선거조사의 종단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4): 112-114.

송건섭 외. (2011).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5(3): 49-71.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행태: 13-18」. 서울: 후마니타스.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149-161.

이계오·장덕현. (2011). 사전태도 및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 행동간 상관성 연구. 「조사연구」, 12(1): 1-30.

이곤수 외. (2011). 지방선거의 유권자 투표 선택, 정당인가 후보인가?: 6.2지방선거와 서울시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339-360.

이명행. (2010). 「공직선거의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준웅. (1998). 후보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2): 243-284.

전재섭. (2009).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정당선호, 후보자 선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전용주 외. (2017).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엠플러스.

조현걸·박창규. (2000).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분석. 「대한정치학회보」, 8(2): 209-2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2006, 2010, 2014, 2018). 지방선거 통계자료.

「조선일보」. (2008). 실버민주주의. 3.22.

Campbell, A.(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Corbett, M.(1991), *American Public Opinion: Trends, Processes, and Patterns*, New York: Longman.

Dahl, R. A.(1998).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Franklin Mark N.(2004).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lly, S., & Mirer, T.(1974). The Simple Act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72-591.

Lewis-Beck, M. S., & Rice, T.(1992). Forecasting Elections. Washington, DC : *Congressional Quarterly.*

Miller A. H., et al.(1986). Schematic Assessment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521-540.

Miller, A. H., Wattenberg, M. P., & Malanchuk, O.(198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Candidate Assessments. In Sander, K. R., Kaid, L. L., & Nimmo, D. ed. *Political Communication Yearbook,*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Miller, Warren E.(1992). Generational Changes and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14(3): 333-360.

Newman, B. I., & Sheth, J. N.(1985). A Model of Primary Vot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178-187.

Nimmo, D. D., & Savage, R. L.(1975). *Candidates and Their Images : Concepts, Methods, and Findings*, CA: Goodyear.

Patterson, T.(1993). *Out of Order*, New York: Knopf.

Reeve A., & Ware, A.(1992).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and Theoretical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Shama A.(1976). Political Marketing : A Study of Voter Decision-Making Process and Candidate Marking Strategy. *Proceeding of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381-385.

Sherif, M., & Hoveland, C. I.(1961). *Social Judgement: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tanley, F., & Canover, P. J.(1983). Candidates, Issues and Voters: The Role of Inference in Political Perception. *Journal of Politics*, 45: 110-139.

Verba, S., & Nie, N. H.(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Wattenberg, M. P.(1994). *The Decline of American Political Parties*, *1952-199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Wyer. S. T., Budesheim, T. L., Shavitt, S., Riggle, E. D., Melton, R. J., & Kuklinski, J. H.(1991). Image, issues, and ideology: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about political candid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33-545.

송건섭(宋建燮):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정치와 지방선거, 인사평가, 정부소통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세대별 투표행태”(2017), “의원-주민간의 소통지표구성과 진단에 관한 연구”(2017),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2018) 등이 있다(kssong@daegu.ac.kr).

〈논문접수일: 2018. 12. 10 / 심사개시일: 2018. 12. 12 / 심사완료일: 2018. 12. 16〉

Abstract

Analysis of Voting Decisions of Young Voters in 2018 Local Elections: Daegu-Gyeongbuk voters' pre and post survey

Song, Keonsup

This article examines the hypothesis by conducting pre and post survey on young voters in the 6.13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liminary study, the factors of party and polic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andidate image, but the factors of the person are not. In the post-survey, it was found that the party facto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oting decisions. Second, in the preliminary study, the indirect effect of the policy factor was large. In post-surveys, policy factors and party factors have indirect effects, while personality factors have direct effects on voting decisions. Third, in the preliminary survey, the party factor and the personality factor were very strong in the voting decision, but the person and image factor were important in the post-survey. Younger voters consider candidates' political parties and characters, but eventually they are judged to emphasize their character in voting decisions.

Key Words: local election, vote behavior and decision, pre and post-survey